

‘제2공항 공론화’ 국정감사서도 도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자치도 국정감사
정동영·임종성·안호영 의원 등 공론화 추진 요구
원 지사 재차 거부하면서도 “장관과 얘기할 것”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론화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를 해서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제2공항 공론화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지만, 제주도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지난 2일 전달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제2공항 공론화 문제였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아무리 공론기간이 길었고 형식적으로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제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도 현재 환경부와 논의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본계획 고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이 보기에 그동안 투명하지 못

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며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을 연

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도민의 요구로 시작됐고 숙원이면 결정권도 도민이 갖는 게 맞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짐을 넘길게 아니라 도민의 지사이지 않나. 충분한 숙의과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민주시주의 갈등 해소법이 된다. 외면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만큼은 사업성보다 도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지역갈등을 조정해야 할 도지사로서 말보다는 행동력을 보여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검토를 안한게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지사는 “고시를 앞두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면서도 “(어쨌든) 장관과 얘기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모습도 보였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10월 내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 셈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8일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 건의도, 국감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공항운영권 부분 참여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항 개발연계 상생발전지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공시지가 급격한 상승 억제 및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전기)버스보조율 상향 조정 등 5가지를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제2공항 개발연계 상생발전지원’을 위해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과 제2공항 접근 교통시설 확충,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처리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운영권 참여방안의 경우 에어사이드(활주로 등) 부분은 국가가, 랜드사이드(여객터미널 등) 부분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필요시 투자 등을 통한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에 제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은 4년여의 걸친 주민 의견 수렴, 용역 재검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막바지 단계”라면서 “상생 발전 계획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도, CCTV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도입

어린이 안전 CCTV 등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 및 읍면동 외곽지역 방범용 CCTV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9월 완료돼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추가 운영해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요원들의 관제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초등학교 CCTV 1000대, 읍면 외곽지역 방범용 CCTV 1000대를 우선 도입했다.

내년에도 어린이 안전용 CCTV, 읍면 외곽지역 등에 스마트관제시스템 2000대를 추가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모든 CCTV를 스마트관

제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 CCTV 관제센터에서는 CCTV 6780대를 117명 관제요원이 교대근무로 연중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699대를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 통합 관제하는 작업은 10월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차차단용 CCTV, 클린하우스 CCTV 등도 관제센터와 연차적으로 연계해 나가고, 2022년에는 총 1만2900대(관제수요 예상)의 CCTV가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주요 과일 생산량 늘며 감귤 ‘비상’

사과·배·단감 등 출하량 증가
감귤값 타격 우려… 품질 관건

주요 과일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기상악화로 과수의 품질에 따라 등급간 가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 이전 40~50일 간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10월 과일부문 자료에 따르면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에 견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10월 출하량이 늘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귤 7%, 사과 6%, 배 3%, 단감 4% 각각 상승한다. 반면 포도 생산량은 7% 줄 전망이다.

감귤은 9월 하우스감귤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데다 노지감귤 생육도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9월 기준, 하우스감귤의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16%)로 전년도보다 10% 낮은 kg당 4130원에 거래됐다. 잦은 비날씨로 색깔과 당도 등 품질이 평년에 비해 좋지 않았다.

노지감귤도 태풍에 잦은 비날씨

및 집중호우로 검은점무늬병, 역병(갈색썩음병), 궤양병 등의 발생과 열과가 증가했다. 궤양병 발생 정도가 71%로 여타 병 발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지역은 올해 착과량이 많은 상황에서 야간 기온 하락으로 낙과량도 적어 소과 발생이 우려된다.

2019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50만 2000t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7%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불철 강한 돌풍과 연이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상처와 및 병충해 피해와 발생도 많아 수확기 비상품과 비율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롯데관광개발

GRAND | HYATT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그랜드 오픈

경력직 우대채용

롯데관광개발이 일등 향토기업의 꿈을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2020년 3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준공되면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전체 복합리조트를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980년 공개입찰을 통해 제주시로부터 매입한 본 부지에 1,600 룸 스위트 객실 및 11개 레스토랑과 바, 호텔부대시설, 쇼핑를 등을 개발하여 제주도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최고의 고급일자리 3,100개를 창출하고 도내에서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일등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적 프리미엄 호텔브랜드인 하얏트그룹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그랜드 하얏트 제주(Grand Hyatt Jeju)로 운영합니다. 제주도 핵심 관광명소로 개발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노형오거리에 위치하며 제주국제공항과 3km, 신라면세점 및 롯데면세점과 불과 500~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입니다.

모집부문

모집부문	부서	직무
호텔	객실	프론트오피스 / 하우스키핑 / 클린라운지 / 세탁물 관리 / 차량 운행 관리 / 스파&피트니스
	세일즈 & 마케팅	객실판촉 / 연회판촉 / 홍보 / 디지털 마케팅 / 매출전략
	식음	11개 레스토랑 및 바 업장 관리
	조리	조리(한,중,일식 / 양식 / 제과) / 식품위생 / 스튜어딩
카지노	운영	테이블게임 / 카드를 / 슬롯 / 테크니션
	마케팅	매출전략분석 / 고객유치 / VIP 서비스 / 텔레마케팅 / 로열티 클럽 / 국제 마케팅
	재정	세무 / 케이시 / 카운트
	보안	서베일런스 / 시설보안
리테일	영업관리	상품 발주 / 매출 분석 / 판매기획 및 관리 / 고객관리 / 매장관리
	물류	물류관리
지원부서	마케팅	이벤트 / 홍보
	인사총무	인사 / 채용 / 인력운영 / 교육 / 총무
	법무	법무팀 총괄 / 사내변호사
	구매	구매관리
	호텔재정	회계관리 / 원가관리 / 결산
	IT	ERP 솔루션 / 데이터 베이스 /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 전산 및 시스템관리
	엔지니어링	시설 안전 / 건물 / 전기 / 소방 / 스파 및 수영장 관리
홍보 / IR	기업홍보 및 IR 관리 (공시 및 회계 업무)	
디자인팀	그래픽 디자인 / VMD / 인테리어 디자인 / 플로리스트	

입사 지원 안내

입사지원 방법 및 상세안내는 별도의 채용사이트(잡코리아 또는 사람인) 공고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 064-907-1229 (카지노, 리테일) / 064-907-1232 (호텔, 통합지원)
이메일 문의 : job@lottotour.com

롯데관광개발
LOTTE TOUR